

# 겨울 나그네

강 위 수



- 소설가
- 1965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당선
- 농업박물관 관장
- 한국문인협회 회원
-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회원
- 농촌문학 작가상 수상
- 저서 <돌의 미소>, <고향나그네>

한 해를 마감하는 선달 그믐, 마침 그날은 일요일이기도 해서 일찌감치 길을 떠났으나 구정 연휴가 실시된 때문일까, 고속 도로는 소통이 잘 되었다.

잎 떨어진 나목과 비워진 들판, 고속도로 주변으로 펼쳐지는 실체의 산야는 삭막하고 쓸쓸한 것이었지만, 창유리를 격하고 내다보이는 겨울 풍경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언제나 여행길의 출발은 설레임과 기대로 조금은 들뜬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기분으로 남녘을 향해 달렸다.

나는 묵은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이면 으레 나들이 길을 나선다. 그리고 새해 해돋이를 산에서 맞고 신정 연휴를 보내다가 돌아오는 일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반복해 오고 있다. 그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해 왔으니까 벌써 삼십 수년이나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충남 청양군에 있는 칠갑산, 그리고 그 주변의 사찰 장곡사와 무량사, 공주신원사를 둘러 오기로 하고 길을 떠난 것이다.

청주 '인터체인지'에서 중부 고속도로를 벗어나 공주 쪽으로 향하는 국도로 접어들었으나 국도의 차량 통행은 더욱 한

가했다. 일기예보에는 밤부터 눈이 내린다고 했지만 날씨도 맑게 개어 있었다. 파아란 하늘 아래 펼쳐진 회색빛 겨울 산야를 누비며 달리는 기분은 상쾌하기 그지없다.

나는 카스트레오의 스위치를 넣어 미리 준비한 테이프의 음악을 틀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프랑스의 저음 가수 ‘제랄 수제’의 이별이란 노래가 흘러나온다. 서른한살로 요절한 ‘슈베르트’가 죽기 일년 전에 작곡한 스물네편의 소품 가곡으로 된 ‘겨울 나그네’는 당시 그가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 주듯, 비련으로 상심한 젊은이가 흘날리는 눈발 속에서 방황하는 어두운 분위기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지만, 내게는 이 노래가 조금도 그런 기분으로 와 닿지 않는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겨울 나그네’ 이기를 자처하고 길을 나선 사치한 길손에게는 그 노래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어 전달될 수밖에 없을는지 모른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공주를 비껴나 좁다란 들판과 야산 등성이를 오르내리는 포장 도로를 한 시간 남짓 달리자 칠갑산 밑을 관통하는 대치 터널이 나타났다. 터널을 지나 청양읍 못미처에서 길을 들어서서 이십여 분 더 가면 장곡사에 닿는 것이다.

장곡사 산문 입구 외딴 민박집 앞에 차를 두고 도보로 10분쯤 걸리는 절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내가 장곡사에 처음 온 것은 삼십오륙년 전 어느해 초하룻날이었다. 칠갑산 정상에서 일출 광경을 보고 돌아오는 하산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절이 장곡사다.

칠갑산 계곡 깊숙이 자리잡은 장곡사는, 당시만 해도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절이라는 것이 맘에 들었다. 그 후 몇 차례 더 들르는 기

회가 있게 되어서 장곡사 주변을 배경으로 한 소설 〈들의 微笑〉를 쓰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오후 네시. 한겨울 산골의 짧은 해는 능선 위에 걸리고 골짜기 밑으로는 산그림자의 어둠의 장막이 펼쳐지고 있었다. 서둘러 장곡사 경내로 들어서던 나는 절 대응전 지붕 위로 올라다 보이는 감나무에 눈길이 닿자 멈춰 발길을 세웠다.

잎이 떨어진 감나무 가지에는 짙은 오렌지색의 홍시감이 여러 개 그대로 매달려 있고 건너편 능선 위로 잿아드는 태양 빛을 받아 매혹적이고 선명한 색채를 드러내고 있었다. 짙게 그늘진 산자락이 배경이 되어서 더욱 과장되게 드러나는 붉은 홍시감은 고색창연한 대응전 지붕과 조화가 이루어져 씩 어울리는 구도와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자동차에 넣어 두고 그냥 온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었다.

장곡사에서 온 길을 되돌려 나와 대치터널에 이르면 터널이 뚫리기 전 산허리를 넘나들던 구도로가 나타나고, 구도로를 따라 칠갑산 정상 근처에까지 올라오면 면암 최익현 선생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앞에는 칠갑산장이 자리잡고 있다.

조각가 박철성씨가 칠갑산에 산장을 짓고 이곳에 정착한 것은 내가 칠갑산을 처음 찾게 된 시기와 일치한다.

어느해 그믐날 저녁, 당시만 해도 움막 같은 가건물에 불과하던 산장을 찾아온 길손은 산장 주인을 만나게 되고, 술잔을 기울이며 상봉의 회포를 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나와 박철성씨는 일년에 한두 차례씩 만남의 연륜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천성적인 유랑 길손임을 자처하는 박철성씨, 그는 두만강 쪽 백두산 아래 고향을 두고 단신 월남해서, 속초의 모자상을

비롯해 부산탑, 대전탑, 울산탑 등의 조형 작품을 만들며 실향민으로 떠돌다가, 면암의 동상을 제작하는 것을 계기로 결혼을 하고 이곳 칠갑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역시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인 나와 박씨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치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땅거미가 질 무렵 산장에 도착하자 박철성씨는 나타날 줄 알았다고 반색하며 멧돼지 불고기를 곁들인 주안상까지 차려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정 첫날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의 커튼을 제치니 일기예보에서 예상한 대로 눈이 내려 쌓여 있었다. 장구를 갖추고 산장을 나서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올라갔다.

칠갑산 정상은 산장에서 3킬로쯤 되는 거리다. 날씨가 흐려 일출 광경은 볼 수 없었으나 새해 벽두를 눈덮인 산장에서 맞이한다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여겨졌다.

산장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 자동차 바퀴에 스노우체인을 부착한 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청양읍에까지 내려와서 부여군 외산면으로 빠지는 간선 도로로 들어섰다. 5센티 정도는 될까, 많이 쌓인 눈은 아니었지만 노선 버스와 화물 차량이 이따금 눈에 떨 뿐 일반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스노우체인으로 무장을 갖춰졌다, 남다르지 않는 눈길을 달리는 맛도 괜찮았다.

조심스럽게 차를 모니까 경사가 심하지 않은 눈길에서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무량사를 이십여리 남겨 놓은 거리에 위치한 가파른 고갯길에 이르자 급기야 문제가 일어났다. 고개를 거의 다 올라와서 굴곡진 커브길이 나타나 약간 속력을 늦추자 차는 헛바퀴만 돌아갈 뿐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서울을 떠날 때 준비한 개량 스노우체인도 더 이상 능력

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쪽 편은 낭떠러지인데다가 비좁고 비탈진 눈길이나 차를 돌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1킬로 가까이 경사진 눈길을 후진으로 내려오자니 고역이 말이었다.

차를 세워 놓고 도보로 고개를 넘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청양까지 되돌아 나가 부여읍으로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코스는 일부 비포장 구간인데다가 많이 돌아야 하는 먼 거리이지만, 가파른 고개가 없고 눈이 녹기 시작해서 더이상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량사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부여군 외사면 소재지에 도착하자 나는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카메라백만 둘러멘 채 나섰다.

도보로 이십분 정도의 거리, 무량사 진입로 주변은 눈이 녹지 않고 남아 있어서 심산의 겨울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해줬다.

무량사는 부여군과 서천 보령군 지역을 갈라놓은 차령산맥 줄기가 그치는 만수산 밑에 자리잡은 절로, 규모로도 장곡사를 훨씬 능가한다.

절에 당도해서 좌불석가모니상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대웅전 부처님께 절공양을 올리고, 한산한 사찰 경내의 모습을 몇 컷 카메라에 담은 후 대웅전 왼편으로 비켜앉은 요사채에 들러 주지스님을 찾았다.

무량사 주지스님은 장곡사에서 수도하다가 몇 해 전 이곳에 옮겨온 분으로, 나와는 이십년 가까이 지면을 익히고 속세의 연을 나누는 사이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부여에 출타하고 부재중이라고 하였다.

나는 주지스님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남기

고 무량사를 나섰다.

그 옛날 백제가 왕업의 터전을 잡았던 곳, 부여 논산을 거쳐 계룡산 발치에 있는 신원사를 둘러 공주쪽으로 나오는 길 주변에는 큰산은 보이지 않고 유연한 산세의 골짜기마다 들판을 낀 마을이 들어앉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진다.

논산군 노성면, 조선왕조 때 이 고을에서 세를 떨쳤다는 윤씨 문중의 고택을 구경하고 나오는 길에 나지막한 야산을 배경으로 양지쪽에 자리잡은 아담한 마을을 발견하고 발길을 세웠다.

옛모습이 그대로 남은 기와집을 중심으로 웅기종기 모여 앉은 이십여 호의 농가는 울긋불긋 원색 칠한 지붕을 이었을 망정, 울타리처럼 대나무를 가꾼 집이 여러채 있는데다가, 동네 입구에는 고목의 느티나무가 서 있고, 그 앞으로 흐르는 내 양편에는 다듬지 않은 미루나무가 늘어서 있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더욱이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이 마을은 자동차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 멀리 닭 우는 소리가 한가하게 들려 와서 지난 시절의 추억을 상기시킨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리아.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비인발에 밤비람소리 말을 달리고  
얽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정지용의 <항수>에서

농촌에 고향을 둔 사람치고 초가집과 돌담 같은 옛날 우리가 살아오던 모습에 향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일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전통 환경을 신나게 때려부수고 헐어내는 환경개선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가집과 흙담은 침체와 가난을 상징하는 최우선의 표적이 되어서 순식간에 타도되고 말살되어 갔다. 모나지 않은 야산처럼 유연한 선의 초가 지붕이 벗겨진 자리에는 각지고 직선적인 스텔트 지붕이 올라왔고, 흙담을 헐어낸 자리에는 회색빛의 시멘트 담이 둘러쳐졌다.

초가 지붕을 벗기고 흙담 벽을 헐어 냈다고 해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신 개조가 되고, 더 잘 산다는 단순 논리를 숙고하고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신나게 행진곡을 울리며 휘젓고 없애 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4천년 이어온 우리 것의 전통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새마을 환경개선운동은 무분별한 전통 환경 파괴의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도 재평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꽤 오랫동안 발견한 이 관촬아 보이는 마을을 그냥 비켜 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멀리서 보는 강 건너 경치가 좋아 보이듯, 가까이 들어가서 보는 마을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텃밭 여기저기에는 현 비닐 조각이 걸레처럼 널려 있었고, 길가에 나

뒹구는 빈 농약 병과 비닐 포장지... 원색 칠한 슬레이트 지붕의 농가 안을 들여다보아도 뒷돌과 담벽 어디에나 꿰지고 터진 곳에는 부스럼처럼 시멘트를 발라 놓은 모습은 옛날 살던 모습보다 더 나아보이지 않았다.

나는 발길을 돌려 마을을 나섰다. 이때 갑자기 느티나무에 매달린 대형 스피커에서 뽕짝조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마이크를 조종하는 둔탁한 소음에 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 사항을 알리는 이장의 목소리가 왕왕 울려나왔다.

솔바람 소리와 새소리, 가축 우는 소리가 고작일 것 같던 이 마을에는 어느덧 소리 공해까지 밀려 들어와서 동네 안팎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벌써 오후 세시. 씩씩한 여운을 안고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다.

누군가 ‘인생은 정처 없는 나그네길’이라 노래했던가. 신기루처럼 잡혀지지 않는 꿈을 끝없는 행렬의 길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절망과 허무를 안고 종말을 맞는 것이 인생 역정인 것처럼 나의 나들이길 또한 그 출발은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찬 것이지만, 돌아갈 때는 언제나 좌절과 공허를 한아름 안고 지쳐서 오기가 일쑤다.

하지만 지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연초록 색깔로 윤색되어 아쉬움과 그리움만으로 남기 마련인 것. 미구에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나들이 길을 떠나야 하는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다.